

# 다국적 화학기업 “석유화학과 차별화”

BASF · Dow · DuPont · Bayer, 투자확대 통해 2002년 매출 10-20% 확대

BASF, Dow Chemical, DuPont, Bayer 등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2002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석유화학 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한국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 및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다국적 화학기업들의 2002년 매출 성장목표는 10-20%대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평균 5%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BASF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15%의 매출 성장을 거두기 위해 국내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겠다는 경영방침을 세웠다.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TDI(Toluene Diisocyanate) 14만톤 플랜트 건설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군산의 비타민B2 3000톤 공장 착공을 3월 단행하는 등 2002년 총 2억3000만달러(약 3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1/4분기에 울산 석유화학공장에 소재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20만 6000톤에서 23만6000톤으로 확대하고, CCD 2만톤 공장을 2/4분기에 완공하면 2002년 매출 15% 증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1년 4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Dow Chemical은 2002년 매출 20%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다우케미칼은 2002년을 핵심 유망사업 강화 원년으로 정하고, 반도체 재료, 자동차용 소재, 수(水)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반도체 재료 사업은 IBM 등 비메모리칩 생산기업들이 차세대 물질로 채택한 '저유전율 물질'을 2002년부터 국내에 본격 출시, 삼성전자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분자 유기EL도 삼성SDI 등 디스플레이 생산기업에 공급한다.

자동차소재 부문에서는 소재의 모듈화와 차체용 저중량 플라스틱 공급을 통해 국내 완성차 메이커를 적극 공략하는 한편, 수처리 제품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처리 매출을 10%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2001년 45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이엘코리아는 10% 매출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경상이익도 15% 높여 수익성을 다질 방침이다.

2002년에는 초일류 화학회사라는 Bayer의 브랜드에 걸맞게 고품질의 제품과 고객 서비스 강화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농약분야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국내 관련기업의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폴리머·화학 분야의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건설기업들에 대한 마케팅을 보강하기로 했다.

DuPont코리아는 2002년 매출목표를 2001년보다 10.5% 증가한 4200억원으로, 경상이익은 14.3% 늘어난 400억원으로 정했다.

엔지니어링 폴리머, 전자재료, 포장재, 섬유, 불소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DuPont은 2002년에도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2/ 01>